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6. 5. 16(월)	
		작성 문의	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이희은 과장 / 허홍 팀장 (Tel. 044-200-2795)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신강민 팀장 (Tel. 044-200-2346)
<p>* 엠바고 : 5.16(월) 14시 30분(행사종료) 이후 사용</p>			

제 401차 민방공 대피훈련 참관

- 황 총리,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방문, 비상대피시설 순시
 - 평상시 전시대비 훈련과 안보의식 고취 노력 있어야 나라 지킬 수 있음
- 황교안 국무총리는 5월 16일(월) 오후 2시,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(지하 1층)을 방문, 안전한국훈련* 1일차 훈련인 제401차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*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재난대비훈련 실시로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며, 올해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
- 이 훈련에는 국무총리실 전체 직원이 참여하였고,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 민방위국장으로부터 화상연결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.
- 황 총리는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은 금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, 잇단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국가 안보상황 하에서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그 의미와 무게가 이전 훈련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
- 평상시에 전시대비 훈련을 강화하고,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이 있을 때 나라와 자신을 지키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.
- 그리고, 민방공 대피훈련이 연례적인 행사로 인식되거나,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처가 노력해주길 당부하고, 훈련을 통해 '안보의 주체는 나라'는 국민의식이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더욱 힘 쓸 것을 강조하였다.

※ (붙임)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개요

□ 훈련 개요

- 훈련일시 : '16.5.16(월), 14:00~14:20(20분간)

공습경보(14:00~14:15)

⇒

경계경보(14:15~14:20)

⇒

경보해제

- 훈련지역 : 전국 일원*(읍 이상 도시지역, 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)

* 병원, 고속도로, 지하철, 철도, 항공기, 선박 등은 제외

- 훈련내용 : 훈련경보 발령, 전 국민 대피 및 교통 통제*

*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량 통제는 5분간 실시(14:00~14:05)

□ 주요 중점훈련

- 전 국민 일제 주민대피 훈련

- (지역단위) 접경지역 실제대피, 도심지역내 주변 대피소 찾기
- (직장단위) 민방공, 화생방, 지진, 화재, 건물붕괴 등 긴급대피
- (학교단위) 초·중·고·대학교 학생 일제 대피

-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

- 군부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(시·도별 주요도시 2~3개소)
-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(소방관서 주관)

- 군·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 훈련

- 충무계획상 주요 통제지점 및 교량 등 차량통제